결핵 예방 '2025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학생과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해 건강 감수성을 높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6일 남부청사에서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회장 김영준)와 함께 '2025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열고 결핵 퇴치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크리스마스 씰 모금은 결핵예방법 제25조에 근거한 연례 사업으로 결핵 경각심 제고와 예방 홍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2025년 모금액은 ▲결핵환자 발견 ▲대국민 결핵 홍보 ▲의료취약계층 검진 ▲학생 결핵치료 ▲65세 이상 노인 결핵환자 화상 복약 관리 ▲시설 입소 결핵환자 지원 등에 사용된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지난해 세계 씰 콘테스트에서 큰 사랑을 받은 '브레드이발소' 시즌2 캐릭터로 제작돼 친근한 디자인과 행운의 메시지를 담아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매년 도내 학교에 크리스마스 씰 모금 안내를 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해 건강 감수성을 높이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증정식에 참석한 도교육청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결핵 퇴치를 위한 협회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씰 모금을 통해 감염병 위험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교직원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최대 규모 AI공모전 '화성왔성' 시상식

화성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공모전 중 최고 시상금, 6000만원을 내걸고 진행한 AI공모전 '화성왔성'의 시상식이 열렸다. 화성시는 16일 시청 로비에서 AI공모전 '화성왔성'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 21명(영상7·이미지14)에게 상금과 상장을 수여했다.

영상 부문 대상은 김세영(37·경기시흥시)씨가 제출한 '우린 빛나, 화성(We shine, Hwaseong)'이, 이미지 부문 대상은 김동균(31·서울강남구)씨가 만든 '화성특례시가 경기 해양 관광의 중심 도시로 나아갑니다'가 차지했다. 김세영씨는 상금 1000만원을, 김동균씨는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김세영씨의 영상은 청년 농부가 융건릉·제부도·공룡알 화석산지 등 시의 주요 관광자원을 배경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젊음과 전통, 바다와 땅이 공존하는 도시 '화성특례시'를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김동균씨가 제출한 이미지는 서해안의 낙조와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서해안 해양관광도시로 나아가는 화성시의 비전을 상징적으로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AI공모전에는 전국에서 616건(영상330·이미지286)의 작품이 접수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증명했다.

화성시는 특히 공모 과정에서 AI가 화성시 관련 데이터를 대폭 학습, '화성특례시'라는 콘텐츠가 인공지능 생태계로 확장됐다고 평가했다.

시는 공모전 참가자들이 국내외 AI플랫폼에서 영상과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용주사와 융건릉 등 정조대왕 관련 역사문화 자원 ▲궁평항 ▲제부도 ▲보타닉가든 화성 등 화성시 주요 도시 브랜드와 관광자원을 반복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남양주시, 청년 브랜드 공모전 3개 부문 수상작

남양주시는 청년정책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진행한 '청년 브랜드 공모전' 최우수상에 슬로건 '청년이 뜬다. 남양주의 심장이 뛴다' 등 3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가, 우리의 청년정책을 브랜딩하다'는 슬로건으로 지난달 3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의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슬로건과 정책심벌(CI), 정책 캐릭터 등 3개 부문에 총 168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투표 점수를 합산해 총 17개 작품을 선정했으며, 1200명이 넘는 시민이 투표에 참여할 정도로 관심도가 높았다.

김동연, 괜찮은 일자리·인간 존엄의 노동이 뉴 노멀 돼야

경기도·ILO·고용노동부 공동 주최 국제노동페스타 16일 킨텍스서 개막

전 세계 50개국 청년·국내외 노사정 500여 명 '일의 미래' 논의

청년 100인과 데이터 기반 토론… AI·워라밸·계층 이동 쟁점화

경기도와 국제노동기구(ILO), 중앙정부는 물론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사용자기구(IOE) 등 노동 관련 핵심 기구와 전 세계 50여 개국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술의 진보와 미래 일자리에 대해 고민하고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국제 노동 축제가 시작됐다.

경기도는 16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국제노동페스타(The 2025 GG-ILO-MOEL International Labour Festa)'의 막을 올렸다. 지방정부가 ILO 및 중앙정부와 함께 대규모 국제 노동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AI 등 급격한 기술 발전이 가져올 노동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 플랫폼경제 등 거대한 전환이 일자리는 물론 노동의 의미까지 뒤흔들고 있다. 우리가 노동을 넘어 '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며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청년 기회 패키지, 기회소득,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비정규직 공정수당 등 기회의 불평등이 삶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경기도의 정책을 소개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제1동반자로서 책무를 다하겠다. 전 정부가 역주행했던 정책에 맞서 정주행했던 경험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노동 존중 사회와 일의 미래를 새 정부와 함께 힘차게 열어가겠다"며 "'괜찮은 일자리', '인간 존엄을 위한 일자리'가 뉴 노멀, 당연한 상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지방정부 그리고 일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에는 김동연 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을 비롯해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사용자기구(IOE) 등 국제기구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등 국내외 노동단체와 경영계 대표, 그리고 전 세계 50개국에서 초청한 청년 대표단(Youth 100)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해 '일의 미래'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다.

질베르 웅보 ILO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페스타를 통해 여러분이 만들어낼 통찰력과 파트너십 그리고 해결책들은 앞으로 수년간 청년 고용을 위한 우리의 세계적인 사명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 확대, 일터에서의 노동기본권 강화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경기도, ILO와 함께 청년이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노동시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노동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타의 핵심 프로그램인 '청년 100인과의 대화' 세션에서는 글로벌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식이 도입됐다.

김동연 지사와 김영훈 장관, 이상헌 국장 등 노사정 대표 5인은 무대에 올라 'Youth 100' 대표단과 함께 ▲사회적 이동성(계층 이동) ▲워라밸 대 높은 임금 ▲AI의 일자리 대체 등 민감하고 현실적인 주제를 놓고 데이터 기반의 즉석 토론을 벌였다. 특히 청년들이 사전에 응답한 데이터를 현장에서 시각화해 보여주고, 이에 대해 글로벌 리더들이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16일 '정책의 날(Policy Day)'과 17일 '대화의 날(Dialogue Day)'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날인 16일에는 개막식에 이어 '괜찮은 일자리와 지방정부의 역할', '디지털 경제와 지방정부'를 주제로 한 국제노동포럼이 진행됐다. 영국 맨체스터 광역 정부, 독일 브란덴부르크 등의 해외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발제자로 나서 각국의 노동정책 사례를 공유했다.

17일에는 '제3회 국제청년고용포럼'이 열린다. 이날은 포용적 고용을 위한 혁신과 청년 노동권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 청년들이 직접 작성한 '청년고용 행동계획(Call to Action)'을 발표하며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페스타가 단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제안이 실제 ILO와 각국 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지는 '뉴 노멀'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송민수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2025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성과보고회'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성과 점검 및 개선 과제 도출…건강증진 허브 역할 제고

2026년도 장애인 체력증진 사업 방향 논의 센터 간 협력 강화로 체계적 사업 추진

경기도장애인체육회(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2025년도 경기도장애인체력인증센터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수원·광주·포천·군포 등 4개 장애인체력인증센터의 연간 성과와 주요 이슈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장애인 체력증진 사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고회에서는 센터 간 운영체계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2026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할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장애인체력인증센터가 도내 장애인의 건강 증진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은 "장애인체력인증센터는 도내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해 가장 일선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기관" 이라며 "올해 성과를 기반으로 센터 간 협력과 정보교류를 강화하여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내 장애인체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각 직무별 실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4차에 걸쳐 '경기도 장애인체육 권익교육'을 개최하며 스포츠 인권 보호와 성인지 감수성 제고에 나섰다.

이번 권익교육은 장애인체육 현장의 직무 특성과 역할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돼, 가맹단체 임직원부터 시군장애인체육회 관계자, 직장운동부 지도자·선수, 체력인증센터 실무자까지 폭넓은 대상에게 실질적인 인권 교육을 제공했다.

이번 경기도 장애인체육 권익교육을 통해 도내 장애인체육 실무 관계자들의 스포츠 권익 감수성이 한층 강화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신뢰 중심의 건강한 장애인체육 조직 문화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민수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성복동 546-1번지 일원에 있는 서수지IC 임시공영주차장과 유휴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위해 확보한 국비(3억 5000만원)와 도비(1억 5000만원)에 시비 2억원을 더해 총 사업비 7억원을 들여 7000㎡(약 2118평)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마련했다.

이 미세먼지 차단숲은 지난해 수지구 죽전동 1070-10번지 일원에 조성한 데에 이어 두 번째 미세먼지 차단숲이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흡수, 침강 등의 방법을 통해 도시 생활권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비롯해 다양한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시는 숲의 기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왕벚나무 등 수목 26종 2만 6085주와 실유카 등 초화류 12종 2695본을 식재했다.

또,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서수지IC 임시공영주차장 녹지 내에는 데크시설을 새롭게 설치해 주차 후 버스정류장(서수지IC 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선을 단축했고, 인근 유휴지에는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해 도시경관을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 등의 역할을 하는 도시숲 조성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시 「희망2026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지난 12일 여주시(시장 이충우)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는 연말연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희망2026 나눔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캠페인의 슬로건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여주"로 이충우 여주시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김효진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제막식과 슬로건 피켓팅을 통해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희망2026 나눔캠페인」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여주시 지정기탁 모금액 4억원을 목표로 각 읍면동 및 본청에서 모금을 접수하며, 목표액의 1퍼센트인 4백만원의 성금이 모금될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가 1℃씩 올라간다.

집중모금기간동안 모금된 성금 등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여주시 지정기탁금 계좌로 적립되어 관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위한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안성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 우수기관 감사패 수여

안성시는 지난 15일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 우수기관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주관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성과보고회에서 수여한 것이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으로, 복지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만 60세 이상 은퇴한 사회복지종사자 및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성시행정동우회는 2024는 시범사업을 주관하여 성공적으로 마치고 2025년 지역자원 네트워크 중심 홍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협업으로 위기가구 조기발견체계 구축, 취약계층 중심, 고립 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핵심성과로 988개소 방문, 8,378명 상담, 169건의 서비스 연계 및 26건의 자원을 연계하였으며 특히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복지 수요자와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결하는 사회서비스 모델로서 지역사회 복지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시 담당자는 "행정동우회 회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이라며 "시민들이 필요한 복지정보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복지정보상담원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송민수 기자